

금호아시아나그룹 운명 이번주가 분수령

금호산업 인수위향서 25일 마감, 신세계·롯데 등 욕심

박삼구 회장 행보 관심 ... 오늘 금호고속 매각가 전달

향토기업 금호아시아나의 운명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금호산업 매각을 위한 인수위향서(LOI) 접수가 25일 마감되는데다 앞서 23일엔 금호고속의 최종 매각 가격이 금호아시아나에 전달된다. 관련인 인수자금 마련과 관련 '각정 말라'고 그룹 임직원들 다독이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재계와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매각을 위한 인수위향서 접수가 25일 마무리된다. 인수 후보들이 의향서 접수를 마치면 금호산업 채권단은 1개월간 적격성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심사를 통과한 후보 기업은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한 희망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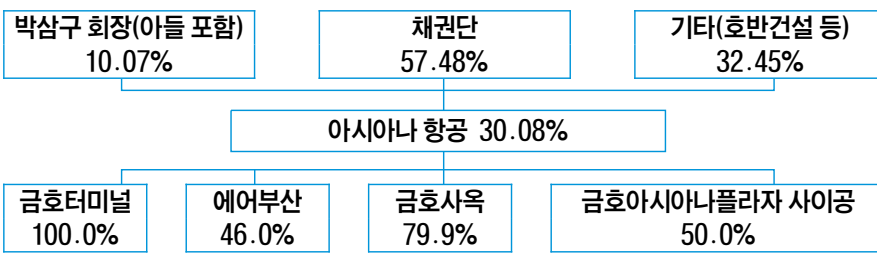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터미널 등의 최대 주주라는 이점 때문에 금호산업은 재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역 연고기업인 호반건설이 최근 인수를 위해 컨설팅업체 딜로이트안진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설도 나왔다. 하지만 호반은 한 때 6%가 넘었던 금호산업 지분을 최근 잇따라 매각하고 있어 인수전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오려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 신세계와 롯데그룹 등 다른 인수 후보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금호산업 인수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금호아시아나 측의 자금동원력과 전략적·재무적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업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세계와 롯데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금호산업을 인수하면 물류망 확대는 물론 면세점 확보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수전은 아직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 금호산업 지분 구조



회장에 유리한 게임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은 제3자 공개매각으로 진행되는데, 결정된 최고가격을 우선매수권권을 보유한 박 회장이 받아들인다면 인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인수전이 흥행할수록 인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박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당장 수천억 원이 넘는 돈을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박 회장이 전략적투자자(SI)와 손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들의 모태기업인 금호고속 가격 협상도 본격화된다.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IBK투자증권-케이스트파트너스 사모펀드는 23일 금호고속 지분 우선

매수청구권을 보유한 금호터미널에 금호고속 인수를 위한 최종 매각 가격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두 회사의 계약상, 지난 14일까지는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가 입찰한 최고가격을 사모펀드가 금호아시아나에 제안하게 돼 있었지만, 14일 이후에는 사모펀드가 적정가격을 금호아시아나에 제안한 뒤, 금호 측은 3월2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일정이 최근 1주일 연기되면서 금호 측은 3월9일까지 인수조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사모펀드가 '얼마를 부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기아차, 내달 제네바모터쇼서 왜건형 콘셉트카 첫 선

기아자동차가 오는 3월3일 스위스 제네바 팔레스포에서 열리는 2015 제네바 모터쇼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콘셉트카 '스포츠페이스'(SPORTSPACE)를 선보인다.

K5를 베이스로 디자인된 이 차는 강력한 동력성과 공간 효율성을 높인 그랜드 투어링 왜건 모델이다. 기아차 유럽 디자인센터에서 탄생했으며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과 내부 디자인이 어우러

졌다. 유럽 디자인센터 수석 디자이너인 그레고리 길라움은 "스포츠페이스는 역동적인 스포츠를 즐기거나 주말에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세련된 감각의 스타일, 편안함과 스포티함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고객들을 위한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휘발유값 50~60원 올라

국제 유가 상승세 영향

이달 들어 국제 유가(油價)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값도 오르고 있다. 광주를 비롯 전국의 휘발유 평균값이 1500원대에 근접하고 있으며 1900원대 최대가 주유소도 다시 등장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휘발유 평균값이 지난 8일부터 오르기 시작 22일 현재 4당 각각 1459.08원과 1454.42원으로 2주전에 비해 50~60원의 오름세를 기록하는 등 반등 분위기다.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16일 연속 상승해 22일 현재 4당 평균 1462.93원을 기록했다.

1900원대 고가 판매 주유소도 다시 등

장. 안도 소안주유소와 소안대광주유소가 보통휘발유를 4당 평균 1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휘발유를 4당 13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는 지난 2월 7342곳에서 21일 현재 1451곳으로 줄었으며 1200원대 판매 주유소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한편 이달 2주차부터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32주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세가 다시 이어진다면 한달여의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에 연동되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2월 마지막 주에는 휘발유 가격이 4당 평균 20~30원 정도 더 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여성기업 임직원 대상 '입찰실무교육'

한국여성경제인협회광주지회(지회장 조애옥)는 24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 센터에서 광주지역 여성기업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제2차 여성기업 입찰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입찰의 개요 및 입찰공고문 해석과 분석, 투찰금액 산출, 적격심사 개요, 나라장터를 통한 모의 투찰, 성공사례를 이용한 실전 입찰 등 실무 위주로 구성된다. 교육은 무료로 실시된

다. 참가를 희망하는 여성기업 임직원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광주지회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광주지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여성기업의 공공판로 개척을 위한 입찰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개설했다"며 "여성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은행(은행장 김한) 임직원들이 설 명절 휴일인 지난 20일, 전산센터 이전 작업을 완료하고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은행 전산센터 14년만에 광주 이전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14년 만에 전산센터를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했다.

광주은행은 22일 "서울 상암동에 있었던 전산센터를 이번 설 연휴를 이용해 광주 본점으로 모두 이전했다"며 "현금 입·출금과 인터넷뱅킹을 비롯한 모든 금융거래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14년 만에 전산센터가 이전됨에 따라 지역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전산 투자가 광주에서 발생하고, 각종 설비 유지보수와 전산 소모품 교체에만도 연간 50억 원 가량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손본다

한전-산업부, 저소득층 부담 완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손질해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초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다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2009년부터 개편이 추진됐지만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번번이 실패한 바

있어 5년여 만의 재검토가 시시하는 바는 크다는 평가다.

정부는 재검토의 근거로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비용부담 때문에 국제유가와 석탄가격 하락으로 인한 발전원가 감소요인이 상쇄되는 편이 많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1974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높은 요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절전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1974년 도입, 초기 3단계로 설정

된 것이 2004년 6단계로 조정됐다.

하지만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이다.

산업용 전력의 경우 계절별로 단가 차이가 있을 뿐 누진제가 아니고 평균요금도 주택보다 싸다는 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대기업 특혜'에 대한 시비가 벌어졌다.

산업부는 이를 고려해 저소득층에 대한 할인제도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로또복권 (제63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7 18 22 24 31 34	6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229,403,179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3,438,302	41
3 5개 숫자 일치	1,513,072	1,719
4 4개 숫자 일치	50,000	84,781
5 3개 숫자 일치	5,000	1,422,59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1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남기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고품격 결혼정보회사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선,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자,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1명 810명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